

시진핑 집권 전후 중국 지정학 지식의 생산과 확산

모준영 *

1. 서론

이 논문은 중국 내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중국 내 지정학 지식의 생산과 확산을 분석한다. 아울러 몇 가지 기초적인 분석을 통해 중국 내 지정학 연구자들의 범주와 대상 그리고 주로 사용되는 개념을 파악한다. 또한 중국 내 지정학 지식 형성의 동인과 흐름의 변화를 고찰한다. 특히 시진핑 집권 전후 중국 내 지정학 지식의 생산에 초점을 맞췄다. 물론 지정학이라는 용어가 시진핑 정부에 들어와서 처음 등장한 것도 아니고, 전유물도 아니다. 그 전에도 인식과 개념으로 존재했고, 학문적으로도 연구가 되어 왔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몇 가지 강조되는 바에 따라 지정학 연구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지정학 일반을 다루기보다는 중국적 맥락에서 다뤄지는 지정학을 검토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된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다. 우선 중국 내에서 나온 논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2000년부터 2019년까지 CNKI에 등록된 논문들 중 ‘지정학’(地緣政治)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2010년부터 2019년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시기를 선택한 것은 시진핑 집권 전후로 지정학이 대내외적으로 많이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이 시기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라고 불리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취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보여주면서 ‘지정학의 귀환’(Return of Geopolitics)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될 정도로 지정학 연구가 증대되었다. 또한 중국 내에서도 시진핑 정부가 일대일로(一帶一路), 해양강국, 강군몽 추진 등 지정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연구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도 이 시기에 지정학 논문들이 많이 생산되었다.

아울러 본 논문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 둔다. 우선 CNKI에 등록된 논문들이 중국 내 모든 논문을 반영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본 논문은 우선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저널에 게재된 5129편의 자료를 추출하고 그 중 단순한 권두언이나 서평, 경제 변동, 인터뷰 등을 제외한 4675편의 논문을 검토했다.²⁾ ‘지정학’(地緣政治)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언급된 것들도 포함시킬 경우 본 논문의 목적의 하나인 연구 추세를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키워드로 논문을 추출했지만, 논문들이 제시한 주제어만으로는 본문의 내용이 지정학과 관련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정학 관련 요소 개념들을 기준으로 논문들을 분류했다는 것이다. 이는 임의의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논문이 의도한 바대로 지정학 연구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리적 요인을 반영한 논문들과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즉 논문의 주제어로만 분류했을 때에는 지정학 논문이라 할 수 없는 논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2) 연구자가 이러한 문건들을 배제하고자 노력했으나 미처 확인되지 못한 문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 생산과 확산이라는 추세를 보여주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와 같은 작업을 추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절에서는 중국 지정학 연구의 생산 추세를 보여주고, 연구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를 토대로 시진핑 집권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보여준다. 3절에서는 시진핑 집권 이전부터 현재까지 연속성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논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한다. 4절에서는 중국 정부의 전략적 정책과 지정학 연구와의 연계 여부를 확인하고, 지식 생산의 동인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추론해 본다. 마지막 절에서는 내용을 정리한다.

II. 연구의 생산 추이

지리라는 환경적 요인은 인간의 정치적 행위가 개입되면서 그 의미를 달리하게 된다. 지정학은 천연자원 가용성이나 부의 획득, 힘의 투사능력이라는 문제에 있어 지라가 정치적 우위를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은 않는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맹의 변화, 새로운 적의 출현, 기술의 진보에 따른 변화, 그리고 정책 결정자의 전략 등 많은 다른 중요한 요소들 또한 고려했을 때 비로소 권력 행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정치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지리적 구성을 유리하게 확장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에 코언은 지정학적 분석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조건에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³⁾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경제적·정치적 부상과 함께 자국의 지리적 조건을 새롭게 인식하고 강대국화에 부합하는 지정학적 인식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新지정학 전략은 과거 중국의 전통적 지정학 인식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렇기에 중국의 학자들 중에는 중국의 지정학 역사를 과거의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지정학이 하나의 학문 틀 내에서 다뤄진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그 내용도 다양하지 않았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2000년부터 생산된 논문수를 보아도 2010년까지는 2008년의 207편이 최다였는데, 2010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1년에 225편을 시작으로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474편,

3) Saul Bernard Cohen, *Geopolitics: The Geogrpahy of International Relation*,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2015, 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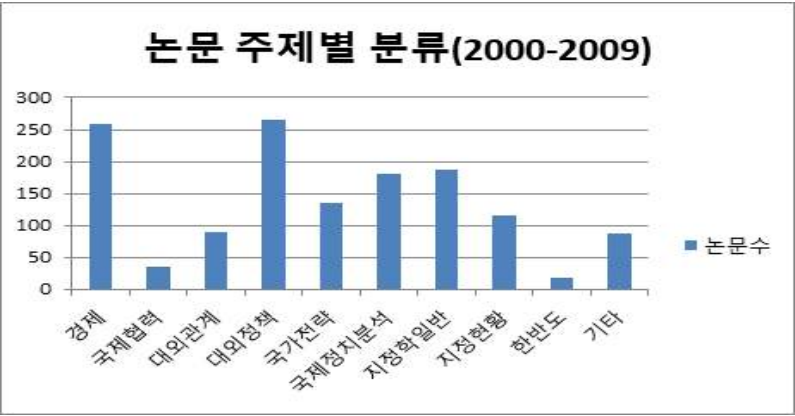
467편의 논문이 생산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약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앞의 그래프 참조).

이러한 양상은 피인용 논문수에 있어 상위에 자리 잡고 있는 논문들이 이 시기에 생산된 것들이 많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아래의 표 참조)

피인용수 순위

저자	제목	년도	인용
刘卫东	“一带一路”战略的科学内涵与科学问题	2015	881
李晓 等	“一带一路”与中国地缘政治经济战略的重构 双语出版	2015	349
王海运 等	“丝绸之路经济带”构想的背景、潜在挑战和未来走势	2014	170
陆大道 等	关于加强地缘政治地缘经济研究的思考	2013	167
邵永灵 等	近代欧洲陆海复合国家的命运与当代中国的选择	2000	135
毛汉英	中国周边地缘政治与地缘经济格局和对策	2014	111
李义虎	从海陆二分到海陆统筹——对中国海陆关系的再审视	2007	88
时殷弘 等	21世纪前期中国国际态度、外交哲学和根本战略思考	2001	85
王卫星	全球视野下的“一带一路”:风险与挑战	2015	83
杜德斌 等	中国崛起的国际地缘战略研究	2012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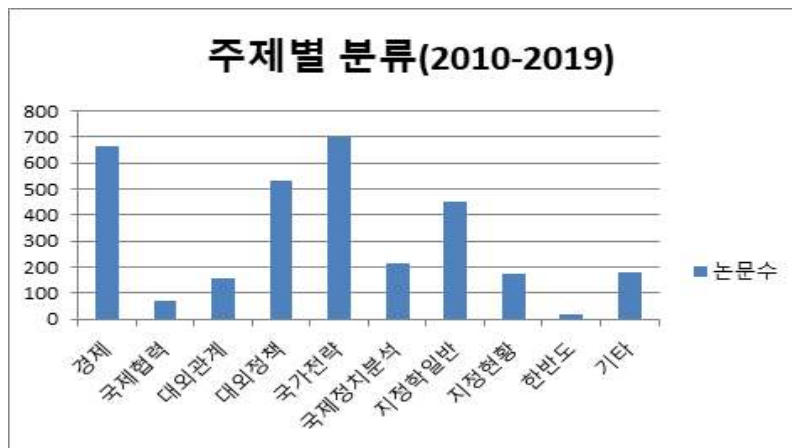
아울러 2010년 이후 지정학 발전 과정 추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논문들을 2000-2009년과 2010-2019년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주제별 논문수를 살펴보았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⁴⁾



이를 보면 2009년까지는 논문들이 국가전략보다는 대외정책을 보다 관심 주제로 삼고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대상국가도 주로 미국과 러시아, 일본, 인도 등이었다.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많이 작성된 분야는 경제 관련 논문인데 주로 에너지자원 개발과 가격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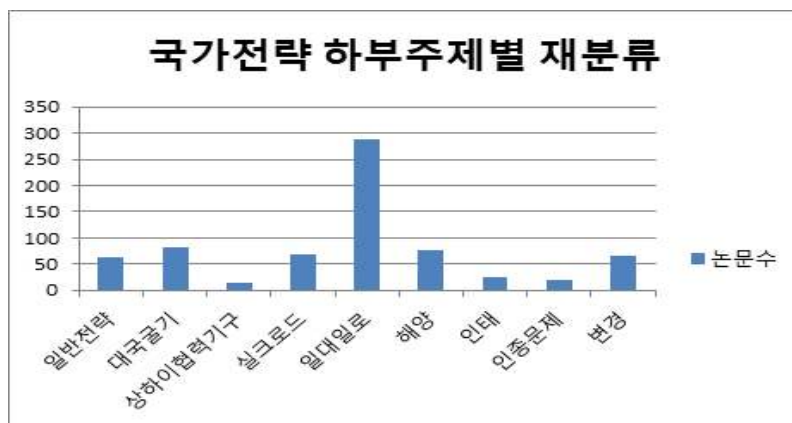
4) 구체적으로 경제 259, 국제협력 36, 대외관계 89, 대외정책 265, 국가전략 135, 국제정치분석 181, 지정학일반 188, 지정현황 116, 한반도 18, 기타 88편이었음.

동 전망 등이 주를 이루었다. 1993년 이후 석유자원 순수입국이 된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하겠다. 그 다음으로 지정학일반과 국제정치분석으로 분류된 논문이 많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지정학일반이란 학문으로서 지정학을 소개하는 논문들을 가리킨다. 국제정치분석은 국제구조의 변화라든가 그로 인한 정세 변화를 소개하는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정현황에는 전쟁이나 분쟁, 혹은 경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변화가 생긴 각 지역의 상황에 대해 다룬 논문들이 분류되어 있다.



위의 그래프는 2010년부터 생산된 지정학 연구 결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2009년까지의 논문과 다르게 국가전략에 관한 논문들이 많이 생산되어서 700편에 달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집권 이후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슬로건 하에 일대일로, 해양강국, 강군몽 등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었던 것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는 실제로 국가전략으로 분류된 논문들을 하부 주제로 재분류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래의 그래프가 제시하고 있듯이 일대일로를 다룬 논문들이 280여 편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대국굴기, 실크로드, 해양,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등 지정학과 관련이 있는 주제들을 다룬 논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보여준 국가정책들의 상당수를 반영해 보여주고 있다. 이에 2010년 이후 중

국 내 지정학은 정부의 정책이 추동력이 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지는 구체적으로 다음 절에서 주제별 추이를 살펴보면서 다루겠다.

III. 연구의 주제(subject)별 추이

이 절은 중국 지정학 연구의 경향 및 추이를 연구 주제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우선 2000-2009년 사이의 논문을 국가전략, 대외정책, 지정학일반, 한반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경제 분야는 상당히 많은 논문이 생산되기는 했지만 대다수가 에너지자원과 관련된 내용이고, 에너지자원과 관련된 내용도 대부분이 국가 간의 관계나 국내정책보다는 유가 전망이나 경제 전망과 관련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⁵⁾

1. 2000-2009년 논문

1) 국가전략

이 시기에 국가전략과 관련해서 다뤄진 논문 주제는 대국굴기(화평발전), 서부개발, 상하이협력기구, 육해복합국가 지향 정도이다.

우선 중국굴기, 화해세계(和諧世界), 화평발전(和平發展) 등 중국의 부상에 대해 논문을 쓴 학자들로는 쑹웨이(宋伟, 2002), 장원무(张文木, 2002, 2007), 황런웨이(黄仁伟, 2003), 천링(陈凌, 2004), 저우샤옹(周晓红, 2005), 샤오지·청쉐핑(肖蓑·程雪峰, 2005), 장지엔징(张剑荆, 2005), 평용핑(封永平, 2006), 스동밍(石冬明, 2006), 왕카이밍(王开明, 2006), 메이란(梅然, 2007), 양루웨이(杨鲁慧, 2007), 리우웨이(刘雪莲·张微微, 2007), 정용니엔(郑永年, 2008), 후얼지에(胡二杰, 2009), 저우홍보·량통핑(周洪波·梁统锋, 2009) 등이 있다.

아울러 중국은 1999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작으로 지역발전전략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후 지역거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을 추구했던 것이다. 서부지구는 천연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통로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중국전체의 71%가 넘는 면적에 해당하는 광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지속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서부개발과 관련해서는 양판·주닝(杨帆·朱宁, 2000), 정웨이페이(郑雪飞, 2001), 덩즈강(丁志刚, 2001), 마만리·펑루이(马曼丽·冯瑞, 2002), 리샤오화(李小花, 2002), 리링친·리마하이저우(玲琴·马海州, 2003), 장휘(张辉, 2009) 등이 글을 발표했다.

또한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SCO)는 1996년 중국과 러시아 양국과 중앙아시아의 5개국(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출범시킨 '상하이 5국'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⁶⁾ 2001년 6월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하면서 SCO로 전환되었고, 이후 이 지역에서 고조된

5) 에너지자원 관련해서 국가 간 협력이나 지역 협력을 다룬 논문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3년부터 석유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석유 자원 확보에 관심이 많음. 다만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주제에 초점을 맞춘 것임.

6) 王曉玉·許濤, 「論上海合作進程中的綜合安全理念」『俄罗斯中亚东欧研究』2003年 第5期, 52쪽.

여러 위협요소들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틀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중국에게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유라시아대륙의 배후를 유지·관리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SCO의 안보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⁷⁾

이에 SCO에 대한 지정학 연구들도 진행 되었는데, 류카이·가오바오친(刘凯·高宝琴)(2003), 리리판李立凡)(2004), 장더광(张德广)(2006), 장신웨이(蒋新卫)(2006), 쉬타오(许涛)(2006), 양루웨이(杨鲁慧)(2007), 자오화성(赵华胜)(2007), 한리화(韩立华)(2007) 왕신위에(王欣月)(2008), 왕첸웨이·리홍메이(王岑卉·李红梅)(2008), 등이 있다.

또한 해양강국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이던 후진타오 집권 시기에도 육해복합국가 구상에 대한 논의가 없지는 않았다. 샤오용링·스인홍(邵永灵·时殷弘)(2000), 양용(杨勇)(2004), 후루이타오(胡瑞涛)(2004), 리이후(李义虎)(2006, 2007), 류신화·진이(刘新华·秦仪)(2006), 퉁샤오웨이(孔小惠)(2008), 완니엔칭·왕이민(万年庆·王义民)(2009) 등이 있다.

샤오용링과 스인홍은 중국이 유럽의 육상과 해안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라면서 중국이 강대국이 되는 길은 육해 복합국가의 지정학적 약점을 극복하고 안정된 대륙 배후지를 바탕으로 개혁개방을 중심으로 해양개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⁸⁾ 또한 완니엔칭과 왕이민은 중국이 복합 국가의 지리적 딜레마를 극복하는 데 있어,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올바른 지정학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육지와 바다를 균등하게 고려할 수 없는 만큼 국익에 맞게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운용해야 함을 강조한다.⁹⁾

2) 대외정책

10년 사이에 생산된 대외정책 관련 논문은 상대적으로 많은데, 대체로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었다. 대외정책 관련 논문 265편 중 대부분이 중국 자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것이었고, 다음으로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외정책 연구가 각각 60, 53편으로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미러, 미일, 미중 등의 조합까지 헤아리면 더욱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안보 상 이들 국가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기도 하고, 아직 지정학에 대한 연구가 학문적으로 자리 잡기 전 대외정책 연구에 지정학(地緣政治)이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계상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그 외의 대상국가로는 일본, 인도 등에 대한 연구도 이뤄졌다. 이는 후술하는 2010-2019년의 논문들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진다.

3) 지정학일반

앞서 대외정책 분야를 다루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지정학이라는 학문 분과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던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정학을 소개하는 논문들이 대부분이다. 마한(Alfred Thayer Mahan)으로부터 스파이크만(Nicholas J. Spykarn)에 이르는 고전 지정학으로부터 비판 지정학까지 아우르는 지정학자들과 그 이론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논문이 많이 생산되었고, 그에 따른 각 지역별 지정학적

7) 潘光·戴轶尘·张屹峰·赵国军, 「上海合作组织的机遇与挑战——第十一届中亚与上海合作组织国际学术研讨会综述」, 『新疆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35卷 第1期 2014年 2月, 62쪽.

8) 邵永灵·时殷弘, 「近代欧洲陆海复合国家的命运与当代中国的选择」, 『世界经济与政治』, 第10期, 2000年.

9) 万年庆·王义民, 「中国陆海复合地缘环境的形成及其战略选择」, 『河南大学学报(自然科学版)』, 第39卷 第4期 2009年.

상황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특히 루쥔위엔(陆俊元, 2005~2008)과 리우중민(刘中民, 2006~2009)은 고전 지정학 연구자들의 개념이나 이론을 소개하는 논문들을 많이 작성했고, 위궈정(于国政, 2005)과 리화평(李华峰, 2006)은 비판 지정학에 대한 소개를 했다. 이를 보면 지정학에 관한 논문들도 2005년 이후에 비로소 나오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독일지정학의 생존공간 개념을 연구한 논문(张才圣, 2006)이 있었다는 것이다. 독일지정학은 지정학을 ‘저주받은 학문’으로 만들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독일을 중국과 같은 육해복합형 국가로 보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역사적 사례를 통해 지정학을 설명하고 있는 연구들도 많이 생산되었다. 59편의 논문이 지정학 관련 역사 연구였다. 이들은 중국의 역사에서부터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역사, 그리고 한국 전쟁 참전 등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4) 한반도

많은 논문이 다뤄진 것은 아니지만 지정학 연구자들이 한반도와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을 지정학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대체로 한반도의 지정학 위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령 리우웨이청(刘会清)은 한반도가 북태평양에서 가장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 중 하나라면서, 미국이 지정학적 이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중-러-일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독특한 지정학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¹⁰⁾ 또한 진징이와 진창이(金景一·金强一)는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한반도 내 충돌을 방지한 상태에서 지정학적 의미가 부각되어야 중국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¹¹⁾

2. 2010-2019년 논문

1) 국가전략

앞서 그래프를 통해 보았듯이 이 기간 중에 국가전략과 관련된 논문들은 700편에 이른다. 이는 기간 중 발표된 논문의 19%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국굴기, 상하이협력기구, 실크로드, 일대일로, 인도태평양전략, 변경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이 절에서는 이들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대국굴기와 관련해서는 두더빈·펑춘핑(杜德斌·冯春萍, 2011), 두더빈·마야화(杜德斌·马亚华, 2012), 자오커진(赵可金, 2012), 링성리·취보(凌胜利·曲博, 2015), 순더강(孙德刚, 2015), 다이웨이라이(戴维来, 2016), 송타오·루다다오·량이(宋涛·陆大道·梁宜, 2017), 송더성(宋德星, 2018), 장원무(张文木, 2018), 텐원린(田文林, 2019), 후즈당·왕웨이(胡志丁·王学文, 2019) 등 상당수의 학자들이 대국굴기와 관

10) 刘会清, 「朝鲜半岛问题研究的地缘价值取向因素」, 『内蒙古民族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35卷 第3期, 2009年.

11) 金景一·金强一, 「朝鲜半岛的地缘政治意义及其对我国的影响研究」,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41卷 第4期 2008年.

련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CO는 이전부터 추진되어 온 지정학적 전략 사업이다. 이전 시기에 이어 계속해서 논문들이 작성되었다. 장야오(张耀, 2012), 양루웨이(杨鲁慧, 2013), 양슈·왕옌(杨恕·王琰, 2013), 링성리(凌胜利, 2015), 쉬타오·왕밍창(许涛·王明昌, 2016), 순장즈(孙壮志, 2018), 저우신(邹鑫, 2019) 등이 있다.

가령 양루웨이는 SCO에 대해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에서 새로운 안보 관점을 통합하고 상호 신뢰, 평등, 협상을 통해 공동 안보와 공동 개발을 모색했다고 평가하고,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이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순장즈 역시 중앙아시아 안보상황에 있어 SCO의 확장된 역할을 제시하는데, 그는 다자간 협력을 이끌어 지역운명공동체와 이해공동체를 만드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新실크로드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논문들이 작성되었다. 대표적으로 레이모(雷墨)(2015), 이지엔민(李建民)(2014, 2016), 쉬샤오지에(徐小杰)(2014), 순싱지에(孙兴杰)(2014), 쉬타오(许涛)(2016), 판즈핑(潘志平)(2016), 장장허(张江河)(2017), 펑추안뤄(冯传禄)(2019) 등이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장장허(张江河, 2017)는 현대 해상 실크로드 건설이 교통 흐름, 지리적 목표, 노드 초점 및 생산 능력 협력과 같은 지리적 의도로 인해 지정학적 안전에 대한 복잡한 인식, 테스트 및 도전을 가져 왔다고 한다. 이는 문제 지향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내부 시험은 동해, 남해 및 대만 문제와 육해 통합, 지역 조정, 국경 및 원양 항해와 같은 문제에서 비롯되며, 외부 도전은 지리적 안보 인식과 정치적 상호 신뢰, 지역 연결을 위한 선택, 관심과 힘의 일치, 안보 딜레마 및 민심과 연결된다고 한다. 현대 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있어 이러한 지정학적 안전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조건과 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지리학 법칙을 준수하고, 시간적 카메라를 사용하여, 인재를 재사용하고, 지능을 발휘하고, 해상 및 우주망을 통해 운영하며, 시민의 상향식 문화 정체성을 육성해야 한다고 한다.

펑추안뤄(冯传禄, 2019)는 "해상 실크로드"의 관점에서, 인도양이 우수한 천연 자원을 제공하고 세계 해상 교통의 허브 지위를 갖고자 하는 주요 국가를 유지하여 지정학적 전략을 경쟁할 수 있는 내재적 조건을 갖고 있지만, 인도양으로부터 중국이 직면한 것은 주요한 위협이 아니며 인도양 해상 권리를 부적절하게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인도양으로부터 위협 요소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는 인도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의미가 적다면서 세계 지정학적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중심의 무대'도 아니고, 세계 주요 강국의 '지형적 전략 중심'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인도"가 부상함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이 억제되는 상황이라면서 이 지역의 지정학적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루다다오(陆大道)는 '일대일로'전략의 실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일대일로' 관련 권고안을 제시했다.¹²⁾ 링성리(凌胜利)는 주변 지정 환경을 살펴보았다. 그는 일대일로 전략은 주변의 지정학적·안전·경제적 요소를 융합해 지정학적·경제적 요소를 끌어올리고 주변의 지정학적 연계를 강화해 지정학적 에너지를 방출해야 주변 지정학적 재구성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주변국가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주변 지정 환경의 최적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학적 요소에 대한 우리의 자금 조달은 지정학적 경제를 주도하고 다른 지정학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¹³⁾ 왕권(王军)은 중국 성립 이래, 특히 개혁 개방으로부터 40여 년 동안, 현대화

12) 陆大道, 「当代中国的全球观念与全球战略」, 『地理科学』, 第36卷 第4期2016年.

를 핵심으로 지향하는 항구적인 대전략을 갖고 있다면서, 일대일로 구상은 21세기 중국의 최우선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 건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략이라고 주장한다.¹⁴⁾ 리지엔민(林民旺)은 일대일로 구상이 현재의 지정학적,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하향적, 투자환경적인 위험 과제에 대해 위험평가를 마치고, 효과적인 위험회피 대응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초기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¹⁵⁾

그 외에도 거한원(葛汉文, 2015), 차이펑홍(蔡鹏鸿, 2015), 리샤오시엔(李绍先, 2016), 펑추안뤼(冯传禄, 2016), 리시웨이(李曦辉, 2017), 장커성(张克成, 2017), 장건하이(张根海, 2019), 장원무(张文木, 2015, 2017), 종페이팅(钟飞腾, 2019), 후지엔(胡键, 2016, 2017), 순더강·저우즈칭(孙德刚·邹志强, 2018), 황펑즈·웨이용이엔(黄凤志·魏永艳, 2019), 류원거·푸스원·황위(刘文革·傅诗云·黄玉, 2019) 등 대표적 지정학 연구자들이 한두 편씩 논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시진핑은 신행국제관계 건설 추진과 더불어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의 새로운 여정을 열어 나갈 것을 주장했고, 인류운명공동체건설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결국 일대일로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덩공(丁工)(2017), 허야페이(何亚非)(2018), 우카이즈·장비아오(吴凯之·张彪)(2019), 황펑즈·순웨이송(黄凤志·孙雪松)(2019) 등의 연구 결과가 있다. 우선 덩공은 중국의 전략적 기회는 전 세계가 서로 잘 통하고 운명이 서로 맞물리는 정도가 깊어지면서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는 중국이 인류 공동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특수한 단계에 있다면서 중국이 전략적 기회를 잘 살리고, 인류운명공동체의 새로운 시각과 협력이 함께하는 새로운 발상으로 위기에 대처하며, 도전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류운명공동체와 중국의 전략적 기회가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¹⁶⁾ 황펑즈와 순웨이송(黄凤志·孙雪松)은 인류운명공동체사상은 전통적 지정학적 사고를 초월한다면서, 우수한 중화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체성, 융합적 사고와 다차원적 자연이념의 새로운 사상이라고 한다. 아울러 중국이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는 지정학적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새로운 지정학적 이념이라고 한다.¹⁷⁾

지난 시기에도 육해복합국가에 대한 연구가 생산되었었다. 그것은 후진타오 시기에 해양강국 건설 구상이 나오면서부터 진행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해양강국 건설 사상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부분이다. 19차 당 대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대륙 편향에서 벗어나 해양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신시대 해양강국건설의 중대사명을 추진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특히 해양이 민족생존번영, 국가안위와 흥망성쇠를 가르는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해양강국 건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19차 당대회 이전에 생산된 논문들도 많이 있다. 류쉐린(刘雪莲)이 왕용(王勇)(2011), 장웨이웨이(张微微)(2011), 싱슈쥔(邢树君)(2013) 등과 함께 연구한 결과들, 그리고 정이웨이(郑义伟, 2013, 2017, 2018), 정이웨이·장지엔홍(郑义伟·张建宏, 2013), 리위엔(李源, 2014), 천

13) 凌胜利, 「“一带一路”战略与周边地缘重塑」, 『国际关系研究』, 第1期 2016年.

14) 王军, 「新时代大棋局—21世纪中国的首要目标与地缘政治战略」, 『聊城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5期 2019年.

15) 李建民, 「“一带一路”建设的新挑战与对策」, 『董事会』, 第5期 2016年.

16) 丁工, 「人类命运共同体的构建与中国战略机遇期的存续」, 『国际经济评论』, 第6期 2017年.

17) 黄凤志·孙雪松, 「人类命运共同体思想对传统地缘政治思维的超越」, 『社会主义研究』, 第1期(总第243期) 2019年.

차이원·수하오(陈彩云·苏浩, 2014), 장펑(姜鹏, 2016), 창스공(强世功, 2018)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학자들 간에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2013년 정이웨이(郑义伟)는 장지엔홍(张建宏)과 함께 쓴 논문에서 <论陆海复合型国家发展海权的两难困境——欧洲经验对中国海权发展的启示>에서 세계 강대국이 지속적인 번영과 안보의 열쇠로 바다를 통제하면서 한 나라가 육지와 해권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없다면서 유럽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2018년에도 물러서지 않고 육상복합형 중국 지정전략의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陆海复合型中国“海洋强国”战略分析>에서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와 2019년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각각 '해양강국' 건설 공식화와 '해양강국 건설 가속화'를 강조한 것을 육상복합형 중국 지정전략을 해양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양복합강국은 권력을 행사할 때마다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4년에 리위엔(李源)은 프랑스와 독일을 사례를 들어 육해복합형 딜레마를 지혜롭게 해결한 것에 대해 제시했다.¹⁸⁾ 그는 육해복합형 대국이지만, 무작정 바다로의 확장으로 고통을 겪은 후 오늘날에는 EU의 공동 방위를 주도하고 있고 NATO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다자 외교"를 통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해상 세력을 활성화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그는 "통합"과 "다자 외교"를 통해 복합대국의 딜레마를 극복했다면서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장원무(张文木)는 2013년에 시리즈 연재를 통해 중국의 지리적 위치는 글로벌 지정학적 비교에서 '아시아 중심'과 해경을 겸비해 큰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오늘날 해양 및 육상 복합 국가로서 국방이 안전할 수 있도록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¹⁹⁾

이와 더불어 해군력 육성을 강조한 논문도 있다. 양전(杨震)과 차이량(蔡亮)은 2016년 논문에서 중국 특색의 대국 해군 외교를 주장한다.²⁰⁾ 그는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의 지정학적 상황은 크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왔다면, 안보, 경제 및 기타 요인의 변화로 인해 세계 최대의 육상 복합 국가인 중국은 해상권 잠재력을 확고하고 천천히 방출하고 해양 강국으로의 전략적 목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중국은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면서 군사기능, 경제기능, 외교기능, 경제기능 등 4대 기능에 대해 보다 깊은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군의 외교적 활용을 중시하고 이를 대국외교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울러 양진(杨震)과 정하이치(郑海琦)는 2017년 논문에서 중국의 해권 우선전략과 해군 변혁을 주장했다.²¹⁾ 그들은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은 과거와는 다른 지정학적 상황에 직면 해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상대로 간주하고 대만해협에서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지정학적 중심이 육지에서 해양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중국의 해권개발의 절실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 해군이 전략적 변화를 시작하고, 이러한 변화는 해군의 전력을 높이고 중국의 해양안보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해권전략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해양경제 및 해양강국을 추구하는 데 대한 논문들도 생산되고 있다. 장원무(张文木, 2015), 후즈용(胡志勇, 2015), 다이웨이라이(戴维来, 2015), 링성리(凌胜利, 2015), 양전·저우원형·주이(杨震·周

18) 李源, 「法德重后海洋战略的逻辑——化解“陆海复合型”困局」, 『欧洲研究』, 第2期 2014年.

19) 张文木, 「中国地缘政治的特点及其变动规律(上)」, 『太平洋学报』, 第1期 2013年.; 张文木, 「中国地缘政治的特点及其变动规律(中)——中国内陆地缘政治的区域比较」, 『太平洋学报』, 第2期 2013年.; 张文木, 「中国地缘政治的特点及其变动规律(下)——中国长江流域地缘政治的功能和意义」, 『太平洋学报』, 第3期 2013年.

20) 杨震·蔡亮, 「中国特色的大国海军外交——基于当代海权思想的视角」, 『社会科学』, 第12期 2016年.

21) 杨震·郑海琦, 「中国海权优先战略与海军转型」, 『理论视野』, 第8期 2017年.

云亨·朱漪, 2015), 마지엔광·순치엔지에(马建光·孙迁杰, 2015), 리첸푸·허홍이(李振福·何弘毅, 2016), 자다산(贾大山, 2016, 2017), 양진·차이량(杨震·蔡亮, 2016, 2017), 류신화(刘新华, 2017) 등의 논문이 있다.

자다산(贾大山, 2016)은 해양운영이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기초산업이라면서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경제·무역발전을 촉진하는 이중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²²⁾ 아울러 현재의 지정학적 발전상황은 해양개발에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하고 발전에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잘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이웨이라이(戴维来, 2015)는 중국은 지정학적 경제와 정치적 전략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해상 지형의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해양강국 건설은 해양권의 강화를 피하고,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다루며, 안정된 주변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해양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국적 특성, 중국적 스타일, 중국적 기류를 가진 해양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³⁾

아울러 중국 연구자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다. 지난해 6월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대체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이해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도 그러한 부분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 다만 부분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를 미국 주도의 것 외에 인도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우선 양진과 왕선(杨震·王森)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갖고 있는 장애물과 딜레마에 대해 분석했다.²⁴⁾ 그는 냉전 이후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는 유라시아의 경계를 통제하고 이 지역에 미국 해계모니를 위협하는 국가나 국가 집단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유라시아 국가들에 대한 강점이 줄어들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내놓았고, 이를 통해 해양에서 중국을 막으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이 되면서 성공하지 못했고, 새롭게 해양강국으로 발전하려는 중국을 억제하려는 '인태 전략'을 내놓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 전략은 해계모니 비용 상승, 군사력 사용의 지정학적 한계, 그리고 동맹체제로 인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한편 리수자오(李秀蛟)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건설을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 목표로 선언한 데 대해서 미국의 '인태전략'의 출구가 중국 주변의 안보환경 및 글로벌 지정학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을 제시하고, 러시아의 인태전략에 대한 대응을 분석하고 있다.²⁵⁾

리보(李渤)는 인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했다.²⁶⁾ 그는 21세기 들어와 인도가 부상하면서 외교공간을 확장해 가고자 하면서 유리한 지정학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한다. 인도는 '동진'전략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이 전략화한 것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외에도 후즈용(胡志勇, 2016), 주첸이핑(朱翠萍, 2018), 정이웨이(郑义伟, 2018), 후보(胡波, 2019), 자오화성(赵华胜, 2019) 등 많은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시기에는 국경지역에 대한 논문도 많이 작성되었다. 웨이쥔지에(魏俊杰, 2013), 저우핑(周平, 2013,

22) 贾大山, 「地缘政治形势对我国海运发展的挑战」, 『中国远洋航务』, 第12期 2016年.

23) 戴维来, 「中国建设海洋强国面临的挑战与方略」, 『理论视野』, 第3期 2015年.

24) 杨震·王森, 「论美国“印太战略”面临的障碍与困境」, 『国际观察』, 第3期 2019年.

25) 李秀蛟, 「俄罗斯对美国“印太战略”的基本判断及可能应对」, 『俄罗斯东欧中亚研究』, 第2期 2019年.

26) 李渤, 「印度“印太战略”认知的影响因素:安全理念与安全问题」, 『新疆社会科学』, 第2期 2019年.

2015), 위앤지엔(袁剑, 2014), 순용(孙勇, 2015), 주비보(朱碧波)(2015), 장지엔(张健)(2016), 송타오·류웨이둥·리러(宋涛·刘卫东·李玪, 2016), 자이귀강(翟国强)(2016), 거추안성·허판닝·류하오룽(葛全胜·何凡能·刘浩龙, 2017), 런홍성(任洪生, 2017), 저우권화·리위만(周俊华·李玉曼, 2017), 루오중슈(罗中枢, 2018), 송치엔치엔(宋倩倩, 2018), 송타오(宋涛, 2018), 장원무(张文木, 2018), 팡티에(方铁, 2019), 칭자오·주야펑(青觉·朱亚峰, 2019), 등이 이에 대해 다뤘다.

지난 시기와 변화가 있는 부분이 에너지자원과 관련되어 있다. 지난 시기에 주로 유가 전망이나 분석 위주였다면, 에너지자원에 대한 지역협력이나 지정학적 분석 내용이 많이 다뤄졌다. 특히 2014년 8월 1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財經領導小組) 제6차 회의를 주재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소개하면, 허우밍양(侯明扬, 2013, 2014), 다이잉홍·친용홍(戴永红·秦永红, 2015), 리신(李昕, 2018), 푸징원(富景筠, 2019) 등은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 대한 에너지 관련 지정학 분석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마오한잉(毛汉英)은 중국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에너지 소비국이자 수입국이며, 에너지 공급 안보는 중국의 국가 안보와 근대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에너지 협력으로 석유와 가스 원천을 확장함으로써 기존의 해상 수입 방식에 비해 화물과 시간의 상당한 절감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⁷⁾ 그는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5개국 간의 에너지 협력의 전략적 맥락, 현실적 요구, 자원 보유량, 개발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및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2030년까지 다양한 시점에서 에너지 협력의 잠재력과 규모를 예측한다.

양위, 류이, 진펑원(杨宇·刘毅·金凤君) 등은 2015년 석유 및 가스 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에서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⁸⁾ 이들은 러시아, 미국, 중국,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수요 측면에서 중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지정학적 패턴을 분석하고,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협력 특성을 상세히 분석한다. 이들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에너지 협력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다원화 추세를 보이며 단순한 석유 및 가스 무역에서 석유 및 가스 산업으로 확장되었다면서, 에너지 협력의 위험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중-아시아 에너지 협력에서 만날 수 있는 대국적 지정학적 게임, 러시아의 정책 불확실성, 중앙아시아 각국의 국지적 충돌, 그리고 가능한 자원 국유화와 국제 석유회사로부터의 치열한 경쟁을 염두에 두고, 미래의 중국이 차관과 자원 교환의 협력 모델을 취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푸징원(富景筠, 2019)은 세일 혁명 이후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역할의 변화는 세계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적 "시스템 효과"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예측한다.²⁹⁾ 미국은 세일 혁명을 통해 세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이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새로운 권력을 사용하여 석유 및 가스 시장의 블로그 규칙을 변경하여 세계 에너지 지정학적 패턴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에너지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고, 세일 혁명은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협력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미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석유 및 가스 행위자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법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의 중요한 요

27) 毛汉英, 「中国与俄罗斯及中亚五国能源合作前景展望」, 『地理科学进展』, 第32卷 第10期 2013年.

28) 杨宇·刘毅·金凤君, 「能源地缘政治视角下中国与中亚—俄罗斯国际能源合作模式」, 『地理研究』, 第34卷 第2期 2015年.

29) 富景筠, 「页岩革命与美国的能源新权力」, 『东北亚论坛』, 第2期 总第142期 2019年.

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홍위엔(于宏源, 2019)은 에너지가 모든 국가의 번영과 안보의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현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기초이기에,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중국이 산업화의 후반기에 직면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 그는 현재의 지정학적 경제 상황은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불균형을 촉진하며, 중국은 과도한 외부 의존성과 에너지 금융 위험으로 대표되는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불균형 위험과 수입 채널 위험 증가 및 노드 지역 불안정과 같은 지정학적 안보에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 해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에너지 지정학적 안보 문제를 중시하고, 중국, 중국, 러시아, 중국-중동지역 국가들 간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확장하고, 석유 생산국들과 실용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중국은 청정에너지 기술혁신과 다양한 에너지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세계 에너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중국은 평화와 발전의 현실적인 필요에 더 잘 봉사하기 위해 세계 에너지 거버넌스에서 제도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2) 대외정책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발표 이후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로 영향력을 확장해 가고 있다. 대륙과 해양을 통한 주변국가로의 연결하는 '일대일로'는 구체적으로 시안(西安)을 거점으로 서부 내륙지역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철도와 도로의 연결과 해상으로 중국의 남해안에서 동남아시아-지중해로 뻗어 나가고자 한다. 중국은 2010년대 이후 해상실크로드의 거점 지역에 있는 해외 항만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했다. 중국은 자국의 해양력 증진을 통해 전 세계로 힘을 투사해 나가기 위해 해외 거점 항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연구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전 시기에 미국과 러시아에 편중되던 것이 각 지역으로 배분되고 있다. 미얀마의 연구(林开彬, 2011; 骆乐, 2014; 李灿松, 骆华松, 胡志丁, 付磊, 熊理然, 2015, 杨芳芳, 2016; 刘稚, 黄德凯, 2016)에서부터 인도-파키스탄 간의 연구(陈吉祥 2014), 태국(廖小霞, 2016), 라오스(孔小力, 李昕, 赵霞, 2017), 네팔의 연구(黄正多, 2019) 아프리카(孙德刚·邹志强, 2018), 그리고 유럽의 덴마크, 그린란드에 대한 연구(张乐磊, 2016)에 이르기까지 연구가 진행되어 그 대상이 광범위해졌다. 대체로 일대일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순더강(孙德刚)과 저우즈칭(邹志强)은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가장 긴급한 과제는 개발이지만, 지정학적 경쟁이 전개되면서 군사력 배치가 일어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들어간 지부터 지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즉 외부 강대국의 군사 배치는 동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안보 딜레마를 악화시켜 동아프리카 지역의 "군사화"와 갈등의 "대리인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3) 지정학일반

지난 시기에 생존공간에 대한 논문이 있었던 데 이해 이 시기에는 상당수의 학자들이 독일지정학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리자성(李家成, 2010), 거한원(葛汉文, 2011), 한즈권·류지엔중·장정·류뤄이(韩志军·刘建忠·张晶·刘绿怡, 2015), 팡수(方旭, 2018, 2019), 허우뤄뤄·류원강(侯璐璐·刘云刚, 2019) 등이 이데인데, 중국의 팽창적인 정책을 부추길 수도 있는 것이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아울러 러시아의 지정학 연구도 보이는데, 두진의 연구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마하오위엔·리슈광(马

浩原,李樹廣, 2011), 리즈웨이(李志偉, 2011), 순위엔(孔元, 2015), 이 역시 팽창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 연구 전반에 균형이 필요할 듯하다. 또한 일본의 지정학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지정학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청밍(程銘)(2011, 2012), 거한원(葛漢文)(2012, 2014), 류단(劉丹)(2017), 쉬이엔(徐衍)(2019) 등이 그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독일, 일본 모두 팽창적인 성격의 지정학을 구사했던 국가들다. 다만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더 많은 영미식 지정학에 대한 논문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중국에서 독특한 점은 오웬 라티모어(Owen Lattimore)의 지정학이 언급되는 점이다. 다른 지정학 서적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국경과 관련해서 라티모어의 지정학이라면서 설명하고 있다. 쉬지엔잉(許建英)(2011), 위엔지엔(袁劍)(2013, 2014, 2015), 차이메이취엔(蔡美娟)(2013), 차이메이홍(蔡鵬鴻)(2015), 차이펑홍(蔡鵬鴻)(2015), 가오야빈(高亞濱)(2017), 자오즈웨이·비징(趙志輝,畢敬)(2017) 등이 그 예이다.

아울러 지난 시기에 소수의 학자가 제시했던 비판지정학에 대한 연구들도 함께 진행되었다. 거한원(葛漢文)(2010, 2017), 천위강·저우차오·친칭(陳玉剛·周超·秦倩)(2012), 장취엔(張娟)(2013), 후즈딩·루다오(胡志丁·陸大道)(2015) 등이 있다.

IV. 시진핑 정부 정책과 지정학 연구

중국은 14개 나라와 국경을 함께 하고 있고, 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국가들과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세계에서 주변부 안보정세가 가장 복잡한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주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자국 외교정책의 주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국력에 상응하는 대국의 지위를 얻고 아울러 안정되고 평화로운 발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국의 협조와 지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은 이미 1992년 제7기 전국인대 제5차 회의의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報告)에서 ‘주변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善隣友好關係)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중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구상 부분으로 한다’고 천명한 바 있고, 이후 2002년 중국공산당 제16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이웃에 선하게 대하고 이웃을 동반자로 삼는다(與隣爲善, 與隣爲伴)’고 표명했으며, 2003년 10월 7일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의 발전과 아시아의 진흥”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삼린’정책 즉, ‘화목한 이웃(睦隣), 안정된 이웃(安隣), 부유한 이웃(富隣)’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시진핑의 ‘친(親)·성(誠)·혜(惠)·용(容)’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즉 주변국들과 “친하게 지내고, 성의를 다하며, 포용하고, 베풀며 지낸다.”는 뜻이다. 이러한 외교전략 기초하에 나온 것이 2013년 9월과 10월에 나와 일대일로 구상이라는 틀로 나온 것이다. 더 나아가 “운명공동체(命運共同體)”라는 용어를 그 관계를 표현했고, 2기 출범시에는 그 담론을 세계로 확대해서 “인류 운명 공동체(人類運命共同體)”라는 확대된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용어가 조금씩 달리 사용되었을 뿐이지 결국 일대일로로 집중되는 것들일 수 있다.

실제 구체적인 정책들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온 서부대개발로부터 육해륙복합국가, 에너지 자원 확보 등 모두 연결되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에 시진핑 정부 시기 지정학 연구들과의 연관성을 검토해 보는 차원에서 나눠서 살펴보겠다.

(1)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연구 증가

중국의 서부지역은 정치·군사적인 면에서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중국에 있어서 이 지역은 여전히 정치·안보·경제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에 수많은 지정학자들이 이 지역들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이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구와 다르게 일대일로 연선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한 것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령 뤼위예(骆乐)나 리우즈와 황더카이(刘稚·黄德凯)는 인도와 미얀마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언급하면서, 미얀마 독립 이후 인도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판단하며 양국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면서 중국이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³⁰⁾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외에도 인도-파키스탄 간, 태국, 라오스, 네팔의 연구,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의 덴마크, 그린란드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연구가 진행되어 그 대상이 광범위해졌다.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몽골, 인도,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연구는 이전 시기에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2)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 증가

2014년 9월 20일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2014년 9월 타지키스탄(Tajikistan) 수도 두산베(Dushanbe)에서 열린 제14차 SCO 정상회의와 중앙·남아시아 4개국 방문에 대해, “안보와 경제라는 두 바퀴가 굴러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향후 중국의 대(對)중앙아시아 전략이 안보와 경제, 즉 SCO와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에 의해 제기된 신 실크로드 구상을 축으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진출은 중앙아시아 국제정치 지형에 새로운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에너지 자원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중국은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가 이들이 가진 방대한 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러시아와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 분리 독립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실제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이전 시기에도 존재했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에 내용과 범위에 있어 더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상을 통한 에너지 수송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이 자원 수송 루트 다변화를 비롯해 중국 미래 국익의 사활적 문제로 인식하고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³¹⁾ 실제 리진푸와 펑옌(李振福·彭琰)은 빙상 실크로드, 즉 북극항로를 강조한다. 그들은 북극항로의 건설과 구현이 중국의 발전에 필요한 국가의 통행권리를 실현하는 실천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들은 그러한 통행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책대화를 강화하거나, 교통체계를 통합할 수 있고, 금융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한 방식으로 지정학적 확장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³²⁾ 특히 샤오양(肖洋)은 아시아태평양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를 지적하면서,

30) 骆乐, 「近年来印缅关系升温析评」, 『长春教育学院学报』, 第30卷 第14期 2014年.; 刘稚·黄德凯, 「近年印缅关系的新发展及动因和影响」, 『南亚研究季刊』, 第3期 总第166期, 2016年.

31) 김석환, 『유라시아와 한반도 2030』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4, 183-190쪽.

32) 李振福..彭琰, 「“通权论”与“冰上丝绸之路”建设研究」, 『东北师大学报(哲学社会科学版)』 4期 2019年.;

중국은 전략적 기회의 지속과 연장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주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국관계를 잘 유지하고, 주변 지정전략을 구축하고 해외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는 등 3가지 요소에 주목해야 한 다면서 빙상 실크로드의 추진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다.³³⁾

(3) 해양 및 육해복합국가 연구 증가

육해복합국가에 대해서는 이전 시기에도 논문들이 생산되어 왔는데, 이는 후진타오 시기 해양강국 건설 구상과 더불어 진행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가 2012년 ‘해양강국’ 건설을 제안하면서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해양강국 건설이 실현해야 할 중요한 국가 목표 중의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즉 “해양 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양자원 개발능력을 제고하며, 해양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국가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여 해양강국을 건설하자”고 역설했다. 그리고 2014년 9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각각 42년, 28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양의 몰디브와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관계 개선을 모색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시진핑 정부는 2012년 ‘해양강국’ 건설을 제안하면서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국가 목표중의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즉 “해양 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양자원 개발능력을 제고하며, 해양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국가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여 해양강국을 건설하자.”고 역설했다. 그리고 2014년 9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각각 42년, 28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양의 몰디브와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관계 개선을 모색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³⁴⁾ 결과적으로 중국은 파키스탄 과다르항의 장기운영권과 스리랑카 콜롬보항 개발사업을 재개하고 함반토타항의 운영권을 획득했다.

오랜 기간 대륙국가로 존재하고 인식되어온 중국이 해양으로의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대륙해양 복합 국가로의 전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실제 해양에 관한 지정학 논문들도 2015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육해복합구상에 대한 논문은 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2010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파키스탄 과다르항의 장기운영권과 스리랑카 콜롬보항 개발사업을 재개하고 함반토타항의 운영권을 획득했다. 실제 해양에 관한 지정학 논문들도 2015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연구의 확대를 가져온 것은 2017년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이 “육해통합을 견지하여 해양강국 건설을 가속화하자(坚持陆海统筹, 加快建设海洋强国)”던 강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해양강국 건설 사상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19차 당 대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대륙 편향에서 벗어나 해양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신시대 해양강국건설의 중대 사명을 추진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특히 해양이 민족생존번영, 국가안위와 흥망성쇠를 가르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해양강국 건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4) 일대일로 연구 지속

肖洋, 「格陵兰:丹麦北极战略转型中的锚点?」, 『太平洋学报』, 第6期 2018年.; 张侠.杨惠根.王洛, 「我国北极航道开拓的战略选择初探」, 『极地研究』, 第2期 2016年.; 肖洋, 「北冰洋航运权益博弈:中国的战略定位与应对」, 『和平与发展』第3期 2012年.

33) 肖洋, 「竞争性抵制:美国对“冰上丝绸之路”的拒阻思维与战略构建」, 『国际观察』第1期 2011年.

34) 이동률, 「시진핑정부의 ‘해양강국’ 구상의 지정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제 57집 2호, 2017, 383쪽.

널리 알려져 있듯이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제안함으로써 시작된 일대일로 구상은 이후 2015년 2월 ‘일대일로 영도소조’ 출범과, 3월 <일대일로 공동건설 추진을 위한 비전과 행동> 문건이 나온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후에도 2017년 5월 14일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과 10월 18일 제19차 당 전국대표대회 업무보고 및 11월 10일 APEC 정상회의 연설 등에서 시진핑은 “중국은 상호 존중과 평등, 정의, 상생협력에 기초하고 냉전시대의 사고방식과 강권정치를 버리고 대립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신형국제관계 건설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는 새로운 여정을 열어 나갈 것이며 인류운명공동체건설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당헌(黨章)>에 삽입된 일대일로에 대한 연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19차 당대회 때에도 시진핑 주석은 5년의 외교성과를 설명하면서 일대일로를 가장 먼저 언급했었는데, 이미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정학 연구 분야에서도 다양한 주제로 가장 많은 논문들이 생산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연설회나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와 동시에 일대일로 구상이 갖는 종합적인 국가전략적, 안보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논문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V. 결론

논문이 생산·등록된 것으로 판단했을 때, 중국 학자들이 지정학 연구에 집중한 기간은 10년에서 길게 보아도 15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으로 부상한 이후 소위 제4세대 지도자, 제5세대 지도자들이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 이 기간 동안 지정학에 대한 논문을 생산해 낸 학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가령, 거한원, 공한빙, 탕즈차오, 리우쉐리엔, 리우신화, 리우중민, 루권위엔, 리전푸, 린리민, 판즈핑, 팡티에, 송더성, 위홍위엔, 위엔지엔, 장장허, 장지엔, 장원무, 티엔춘룽, 청스, 정용니엔, 정이웨이, 자오화성, 주첸이핑, 처린, 차이펑홍, 샤오양, 펑샤오레이, 펑위권, 비홍예, 한리화, 쉬타오, 후즈딩, 황펑즈 등의 연구자들이 그들이다. 루권위엔의 경우 지정학 일반 이론을 소개하는 글을 많이 작성했고, 처린은 지정학을 역사적 사실에 접목한 논문을 많이 작성했다. 또한 장원무의 경우 200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지정학 논문을 생산해 왔고, 거한원의 경우 2010년부터 지

정학 논문을 생산했는데 최근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또 탕즈차오는 중동, 리우중민은 해양국가, 리전푸는 북극, 티엔춘룽은 에너지, 청스는 금융, 정용니엔은 주변국가, 정이웨이는 육해복합국가, 자오화

성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주첸이핑은 인도, 차이펑홍은 아태, 샤오양은 빙상실크로드, 펑위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에너지, 비홍예는 유라시아, 러시아, 한리화는 에너지 등 특화된 분야가 있다.

결국 그동안 중국 지정학 연구 분야의 진전을 요약해 보면, 첫째, 고전지정학으로부터 비판지정학에 이르는 지정학 이론의 전반적인 추세를 소개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거한원(2015, 2017)의 경우 중국 지정학 이론 체계의 구축을 언급하면서 중국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국익에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고대 전통사상의 우수한 성과에 서양 지정학 이론의 정수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 지정학적 전통이 주는 시사점으로 국내 질서의 안정, 균형 잡힌 주변 안보 환경 구축, 그리고 중국의 가치 문화가 고양되는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둘째, 이론적 경로에 있어서 중국 학자들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고 미래를 지향하며 선도하려는 학자들도 있고,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분야를 계속 연구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지정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일정 부분 정부 정책에 대한 현실적 기여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중국 내 지정학 연구의 분야가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동의 지정학을 연구하는 학자, 국경지역(邊疆)을 연구하는 학자, 해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 등 고유의 영역을 가진 지정학자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주제별로 연구 분야들이 다양하게 분기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미국, 러시아, 일본, 인도, 그리고 당시 현안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대상이 이제는 남극, 북극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국가들과 지역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또한 분야의 폭도 넓어졌다. 과거에는 육상과 해상에 머물러 있던 시선이 이제 우주까지 확장되고 있고, 인터넷과 미디어 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할당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넷째, 상당수의 논문들이 정부에서 제시한 정책과 보조를 맞춰서 생산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분야의 성장 때문일 수도 있지만, 10년 전과 비교해서 이후 10년 동안 이뤄진 연구 논문들은 전략적인 부분에 치우쳐 보인다. 이전 10년에는 지정학적 시각에서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일이 많았던 데 비해, 이후 10년에는 상당수가 정부 정책과 관련된 논문들이 생산되었다. 가령 일대일로, 실크로드, 육해복합국가 전략 등은 그때 많이 생산된 것이다 물론 중국의 현실에서 정부와 무관하게 중국 특색의 지정학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중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반영하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이 중국 현실에 맞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비판적인 논리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은 학문적 발전에 있어 한계를 만든 것이 될 수 있다.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지정학 연구 분야는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잠깐 주춤한 듯했지만 재작년과 작년의 논문 편수는 500편에 가까웠다. 중국은 육지도 넓고 해안선도 길다는 점에서 어떤 국가보다 지정학 연구가 중요하고 필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역사적, 현실적 측면에서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 직면해 왔고, 중국의 지정학적 환경에 대한 현재의 연구패러다임과 연구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그것이 서구의 것이든 고유의 것이든 설명력이 높은 것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학문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은 현상해석, 가치판단,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한 규범적 연구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잘 어우러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많은 지역과 국가에 대한 지정학적 연구가 이뤄진다면 중국에서 만든 지정학도 다른 국가에게도 쓸모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석환, 『유라시아와 한반도 2030』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4.

이동률, 「시진핑정부의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제57집 2호, 2017.

Saul Bernard Cohen, Geopolitics: The Geography of International Relation,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2015.

王曉玉·許濤, 「論上海合作進程中的綜合安全理念」 『俄羅斯中亞東歐研究』, 第5期, 2003年.

潘光戴·張軼塵·張屹峰·趙國軍, 「上海合作組織的機遇與挑戰——第十一屆中亞與上海合作組織國際學術研討會

综述」，《新疆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35卷 第1期 2014年。

邵永灵·时殷弘，「近代欧洲陆海复合国家的命运与当代中国的选择」，《世界经济与政治》，第10期，2000年。

万年庆·王义民，「中国陆海复合地缘环境的形成及其战略选择」，《河南大学学报(自然科学版)》，第39卷 第4期 2009年。

刘会清，「朝鲜半岛问题研究的地缘价值取向因素」，《内蒙古民族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35卷 第3期，2009年。

金景一·金强一，「朝鲜半岛的地缘政治意义及其对我国的影响研究」，《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41卷 第4期 2008年。

陆大道，「当代中国的全球观念与全球战略」，《地理科学》，第36卷 第4期2016年。

凌胜利，「“一带一路”战略与周边地缘重塑」，《国际关系研究》，第1期 2016年。

王军，「新时代大棋局—21世纪中国的首要目标与地缘政治战略」，《聊城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5期 2019年。

李建民，「“一带一路”建设的新挑战与对策」，《董事会》，第5期 2016年。

丁工，「人类命运共同体的构建与中国战略机遇期的存续」，《国际经济评论》，第6期 2017年。

黄凤志·孙雪松，「人类命运共同体思想对传统地缘政治思维的超越」，《社会主义研究》，第1期(总第243期) 2019年。

李源，「法德重后海洋战略的逻辑—化解“陆海复合型”困局」，《欧洲研究》，第2期 2014年。

张文木，「中国地缘政治的特点及其变动规律(上)」，《太平洋学报》，第1期 2013年。

张文木，「中国地缘政治的特点及其变动规律(中)——中国内陆地缘政治的区域比较」，《太平洋学报》，第2期 2013年。

张文木，「中国地缘政治的特点及其变动规律(下)——中国长江流域地缘政治的功能和意义」，《太平洋学报》，第3期 2013年。

杨震·蔡亮，「中国特色的大国海军外交——基于当代海权思想的视角」，《社会科学》，第12期 2016年。

杨震·郑海琦，「中国海权优先战略与海军转型」，《理论视野》，第8期 2017年。

贾大山，「地缘政治形势对我国海运发展的挑战」，《中国远洋航务》，第12期 2016年。

戴维来，「中国建设海洋强国面临的挑战与方略」，《理论视野》，第3期 2015年。

杨震·王森，「论美国“印太战略”面临的障碍与困境」，《国际观察》，第3期 2019年。

李秀蛟，「俄罗斯对美国“印太战略”的基本判断及可能应对」，《俄罗斯东欧中亚研究》，第2期 2019年。

李渤，「印度“印太战略”认知的影响因素:安全理念与安全问题」，《新疆社会科学》，第2期 2019年。

毛汉英，「中国与俄罗斯及中亚五国能源合作前景展望」，《地理科学进展》，第32卷 第10期 2013年。

杨宇·刘毅·金凤君，「能源地缘政治视角下中国与中亚—俄罗斯国际能源合作模式」，《地理研究》，第34卷 第2期 2015年。

富景筠，「页岩革命与美国的能源新权力」，《东北亚论坛》，第2期 总第142期 2019年。

骆乐，「近年来印缅关系升温析评」，《长春教育学院学报》，第30卷 第14期 2014年。

刘稚·黄德凯，「近年印缅关系的新发展及动因和影响」，《南亚研究季刊》，第3期 总第166期，2016年。

李振福·彭琰，「“通权论”与“冰上丝绸之路”建设研究」，《东北师大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4期 2019年。

肖洋，「格陵兰:丹麦北极战略转型中的锚点?」，《太平洋学报》，第6期 2018年。

张侠·杨惠根·王洛，「我国北极航道开拓的战略选择初探」，《极地研究》，第2期 2016年。

肖洋，「北冰洋航运权益博弈:中国的战略定位与应对」，《和平与发展》，第3期 2012年。

肖洋，「竞争性抵制:美国对“冰上丝绸之路”的拒阻思维与战略构建」，《国际观察》，第1期 2011年。